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 함께 나눠요”

화순군, ‘마음 건강 주치의’ 상담실 운영 정신건강 지원

군민 누구나 무료 상담 서비스...사전 예약 해야 가능

화순군은 지난달 15일부터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마음건강 주치의로 위촉해 정신건강 1:1 상담,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화순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상담 서

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전 예약(061-374-4600)해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소소·잼 키트(스크래치 북, 스칸디아 모스 액자 등) 300개를 제공했다.

또한,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찾아가

는 이등상담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마음 치유로 건강한 삶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교통약자 전용 모빌리티로 장애인 취업 문턱 낮춘다

SK텔레콤, 착한 셔틀 모빌리티

SK텔레콤이 열악한 출퇴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성남시·모두의셔틀과 ‘중증장애인 이동권 및 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 기업·기관들은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관련 선순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대다수는 장애 특성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차선책으로 일반 택시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만 차량 수가 부족해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번 민관 협력으로 4개 기업 및 기관들은 이달 말부터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자택 앞에서 근무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출퇴근을 지원하는 ‘착한셔틀 모빌리티’ 시범 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착한셔틀 모빌리티 시범사업은 25인승 미니버스 차량 9대를 활용, 9개 노선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차량에는 전문 ‘승하차 보조원’이 먼저 탑승해 장애인들의 승하차를 보조하고, 보호자 및 보호자업장과 핫라인을 구축해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신 ICT 솔루션을 접목한다. T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영 노선별 최적 안전경로를 제공하고, GPS 기반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인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보호자가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진도군, 음압 특수구급차 도입...감염병 확산 차단

안전한 환자 이송·신속한 응급처치 가능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음압 특수구급차를 도입,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음압 특수구급차는 병원 내 음압병상처럼 차량 내부 기압을 외부 대기압 보다 낮게 조정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제작된 특수차량이다.

구급차에는 위급한 환자의 이송에 필요한 응급구조장비 세트, 음압덮개가 부착된 환자반반기, 저출력 심장충격기, 산소포화 농도측정기 등 20여종의 첨단 장비가 탑재돼 응급의료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어 이

송 중 전문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운전석과 환자가 있는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의료진 등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감염병 환자를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지역 내 확진자와 의심환자 발생 시 일반 구급차로 이송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음압 특수구급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차량 배치를 마쳤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음압 특수구급차의 도입으로 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이 향상됐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내 친환경 ‘나눔숲 강당’ 조성

국립산림복지진흥원 지원받아 지역주민 이용 만족도 높일 듯

광주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립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실내)’의 지원을 받아 8월 부터 한 달간 친환경목재를 이용하여 복지관 1층에 위치한 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은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

으로써,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내 친환경목재를 이용해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8년에 건축되어 올해 33년이 된 시설인 만큼 노후화 되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일부 개선효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 내에 조성된 나눔숲 강당은 앞

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비장애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미란 관장은 “이번 복지관 내 나눔숲 강당 친환경 소재 리모델링을 통해 복지관 이용자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의 복지관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농수산물 공동브랜드